

# ‘유연투자’로 나홀로 14% 수익률... 자산배분 펀드의 힘

## 약세장 이기는 펀드

### 박찬욱 한화자산운용 펀드매니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지금 시점이 자산배분 펀드에 투자하기 좋다.” 한화자산운용의 ‘한화글로벌리얼에셋펀드’는 연초 이후 14.1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기간 국내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1.28%, 국내혼합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1.20%다. 해외 자산배분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31%다. 연초부터 ‘한화글로벌리얼에셋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투자에 성공한 셈이다.

1일 박찬욱 한화자산운용 솔루션사업본부 매니저는 메트로신문과 인터뷰에서 “저성장 국면에서 꼭 투자해야 할 펀드”라며 ‘한화글로벌리얼에셋펀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2018년 설정 이후 펀드 운용을 맡고 있는 매니저다.

수익률은 상당히 견조하다. 설정액 50억원 이상 해외자산배분형 펀드 16개 중에서 연초 이후 2위 수익률을 기록하



박찬욱 한화자산운용 솔루션사업본부 매니저.

저성장 국면인 지금 최적의 투자 ‘한화글로벌리얼에셋펀드’ 자산감 변동성 4.8% 마이너스 된 적 없어 상황 맞춰 자산 리밸런싱 강점

고 있다. 펀드 순자산은 525억원으로 2015년 이후 설정된 자산배분형 펀드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펀드의 운용 전략은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한화자산운용 내 주식혼합형 펀드의 변동성은 14%인데

반해 ‘한화글로벌리얼에셋펀드’ 변동성은 4.8%로 나타났다. 설정 이후 한번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적이 없다.

펀드는 주로 실물자산이 있는 기업, 인프라가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 특히 해외 인프라의 경우 꾸준한 배당수익이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박 매니저는 “한국전력과 같은 한국 인프라 기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실적 이 움직일 수 있지만 미국, 뉴질랜드 등 해외 인프라 기업들은 약속된 만큼 사업을 하고 중간 리스크가 없다”면서 “해외 인프라 기업, 부동산,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게 꾸준한 수익을 내는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대체투자 자산운용사인 누빈 자산운용의 자문과 한화자산운용의 운용 노하우가 시너지를 내면서 국가별 상황에 맞춰 재빠르게 자산을 리밸런싱(재분배)하는 것이 강점이다. 편입비율도 정해져있지 않아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다.

박 매니저는 “보통 분기별로 자산 리밸런싱을 하지만 매일 시장을 보면서 유연하게 조절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리가 내리면서 편입비율을 소폭 조정했다. 그는 “1, 2분기에는 시장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인프라 주식을 많이 늘렸다”면서 “인프라 주식이 부동산보다 민감하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부동산 주식을 높여나가는 상

태다. 특히 미국, 싱가포르, 일본, 유럽 등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가 발전된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펀드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덜 깨지는 것에 베팅해야 하는 것’이다.

박 매니저는 “S&P500 등 밸류(가치)로 보나 기술적 지표로 보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장이 깨질 수 있다고 봐서 부동산을 늘리고, 채권이나 우선주를 담을 때 리스크가 큰 하이일드가 높은 채권 대신 이자는 적어도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글로벌리얼에셋혼합자산펀드는 인프라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기업 주식에 약 50%, 선순위 증권에 30%가량, 채권에 약 20%를 투자한다. 선순위 증권은 일반주식보다 배당과 유동성은 높지만 의결권은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연 5%~7%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알맞는 상품이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DGB금융,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2016억

### 지주사 출범 후 상반기 최대 실적

DGB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20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지주사 출범 이래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DGB금융은 1일 실적발표를 통해 2019년도 상반기 그룹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한 201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한 2722억원 기록에도, 비은행 계열사들의 영업외 수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소폭 늘었다. 그룹 총자산 역시 하이투자증권 인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1.6% 늘어난 78조원을 기록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전년 말 인수한 하이투자증권을 포함해 비은행 계열사들의 영업외 수익 증가가 전년동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DGB대구은행의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마진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6%, 10.1% 감소한 2318억원,



DGB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20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지주사 출범 이래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DGB금융그룹

1782억원을 달성했다.

총대출과 총수신은 각각 6.5%, 5.4% 증가한 37조 7000억원, 45조 9000억원이며, BIS자기자본비용은 전년동기 대비 0.30%포인트 개선된 15.14%를 기록했다.

비은행 자회사인 하이투자증권, DGB생명의 상반기 순이익은 각각 307억원, 152억원이며, DGB캐피탈 역시 147억원의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9공구 건설공사 수주

### 한화건설, 1459억 규모 계약

한화건설은 지난달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1459억원 규모의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9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부터 안양시 인덕원역까지 연장 37km에 달하는 지하철도 구축 사업 중 9공구 공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작년 말 총 사업구간 12개 공구 중 1공구와 9공구를 턴키(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했으며 보기도 문 대형 철도 기술형 입찰 사업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월에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된 1829억원 규모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를 수주한 바 있으며, 이번 수주를 통해 2연속 기술형 입찰 사업 수주에 성과를 거뒀다.

한화건설은 향후 환승역이 될 영동역(분당선) 수요 인원이 일일 7만여명에 달할 것을 대비해 상하선 환승 통로를 분리하여 쾌적한 환승 동선을 고려한 설계를 선보였다. 더불어 기존 영동역의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개선하고 개찰구 내 공중 화장실의 신규 설치를 제시했다.

/이규성 기자

## 한화건설, 새 아파트 브랜드 ‘포레나’

### ‘꿈에그린’·‘오벨리스크’ 사라지고 갤러리아-포레나로 시장 저변 확대

한화건설이 새로운 주거 브랜드 ‘FORRENA(포레나)’를 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

지난 2001년 탄생한 아파트 브랜드 ‘꿈에그린’과 2000년 생긴 주상복합·오피스텔 브랜드 ‘오벨리스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최상위 고급 주거 브랜드인 ‘갤러리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화건설은 ‘갤러리아’와 ‘포레나’ 두 개 브랜드로 주택 시장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스웨덴어로 ‘연결’을 의미하는 포레나는 ‘사람과 공간의 연결’을 담은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겠다는 한화건설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브랜드 개발로 한화건설은 ‘하이엔드-갤러리아’, ‘프리미엄-포레나’의 브랜드 체계를 갖추게 됐다. 포레나는 아파트,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통합브랜드로, 기존 꿈에그린과 오벨리스크 브랜드를 대체하게 된다.

포레나는 별도의 로고가 없는 워드마크(Wordmark) 형태로 향후 활용에 따라 그래픽 모티프, 패턴, 캐릭터 등을 결합해 새로운 브랜드로 다양한 이미지를



포레나 조감도

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브랜드(BI) 컬러는 ‘포레나 블루’로 신뢰와 믿음을 상징하는 블루와 권위와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블랙의 조합을 표현하게 된다. 또 ‘포레나 패턴’을 통해 아파트 외벽과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제작물과 홍보물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포레나는 상품과 디자인 컨셉트 등 주거상품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담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인테리어, 조경 등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고려한 상품 개발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차별성을 강조했다. 단지 내 입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유형 주방 ‘포레나 키친’, 대형세탁기와 건조기를 갖춘 ‘포레나 런드리(Laundry) 카페’, 미세먼지 걱정없이 언제나 이용가능한 ‘포레나 키즈짐(Gym)’, 반려동물 산책이 가능한 ‘포레나 펫 플레이존’ 등 주거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제공하게 된다.

또 포레나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가전, 조명, 온도 제어는 물론 커뮤니티 시설 예약과 포레나 전자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게 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 한국예탁결제원,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 본사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언식에는 이병래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노동조합 및 자회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KSD 인권경영 선언문’ 낭독 및 전 직원 선서를 통해

인권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언식 후에는 인권경영관련 외부 전문가 강사를 초청해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특별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KSD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권중심의 경영활동 실시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 추진 ▲차별 금지 ▲강제-아

노동동 금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협력업체 인권 존중 ▲지역주민 인권존중 ▲환경경영 실시 ▲고객 인권존중 등 10대 인권경영 실천원칙을 담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인권존중 경영을 더욱 확산시키고 외부적으로 증권회사 등 고객사 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ujn6326@